

추 모 예 배 순 서

- (1) 묵도 (성경말씀 봉독/시편 23 편)/사도신경
- (2) 찬송 (514 장, 543 장)
- (3) 성경봉독 (수 1:2-6)
- (4) 약력 소개 (별세한 이의 약력, 행적, 유훈, 성품등 별세한 이에 대한 인상 깊었던 일들을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지 중에서 말하게 합니다.)
- (5) 설교
- (6) 기도
- (7) 찬송 (305 장 이나 376 장)
- (8) 축도/주기도

(설교예문)

고인을 추모하면서(수 1:2-6)

인간은 예외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죽음을 좋아하거나 환영하거나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거부하고 증오하며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 창조될 때,죽기 위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생하기 위해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죽음은 늘 가까이 있으나 인간은 죽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와 죽음 때문에 이별하게 될 때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힘든 고비에 직면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고인이 하나님의 품안에 안겨있음을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인과 이별한지 ---주기가 됩니다.

고인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섬겨주셨던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고인의 빈자리가 커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빈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인의 빈자리를 그냥
빈자라로만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겠습니까?

1)하나님은 그빈자리를 하나님의 선물인 언약과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본문 2 절 중반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자손에게 주는 그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아니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사가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자손에게 주는 그 땅은 바로 가나안땅 아닙니까? 가나안땅은 바로 언약의 땅이요 말씀의 땅 아닙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성도를 영원히 영화롭게 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고인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채워지고 있음을 알게 될 때 부활과 영생 그리고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인의 빈자리에 말씀과 언약이 채워지고 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고인이 살아계신 것으로도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되고 지혜가 되었는데 이제 고인이 안계신 세상,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고인을 먼저 보내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여호와이레,에벤에셀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본문 5 절 중반에 보시면,“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하십니다.그렇습니다.고인은 우리 곁에 없지만,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2)고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5 절 하반절과 6 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되심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힘있게 해주십니다.그렇습니다.고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우리라도 함께 함께 하십니다.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죽었던 모세는 신약 주님과 함께 했던 변화산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기 남아 있는 자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고인은 우리 곁에 없지만 고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또한 여기남아 있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3)하나더 여기 남은 있는 자들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 6 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리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냥 절망만 하며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땅을 정복했습니다.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그래서 이스라엘국가의 근원을 이루었습니다.그래서 태어나고 태어나는 이스라엘백성들에게 이스라엘땅을 영원히 물려주며 오늘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습니다.그래서 우리도 고인이 다 하지 못한 일들을 다 이뤄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도 때가 되어 이땅을 떠날 때,새하늘과 새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인을 생각하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낼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고인이 우리를 위해 더 간절히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그기도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서 영원한 영생과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